

“빛가람혁신도시, 지역 신성장 거점화”

광주전남연구원 ‘시즌2 발전계획 로드맵’ 발표 실행력 제고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발맞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새로운 발전계획이 나왔다.

혁신도시를 새롭게 도약시킬 5개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들이 제시됐고 이를 추진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0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축(산업·공간·사람)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을 추가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적·공간적·인적 연계발전 구상 전략을 제시했다.

5가지 목표로는 미래 혁신산업 주도,

특화 상생발전 거점화,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융복합 스마트시티 구축,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들었다.

이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을 2022년까지 100% 달성하고, 삶의 질 만족도는 오는 2022년까지 70점으로 올린다.

유치 기업 수도 200개사로 늘리고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은 75%까지, 지역인재 채용률은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화·상생·정주 여건·스마트시티·지역인재 등 5가지 분야별로 주요 추진사업 계획도 내놓았다.

특화 분야는 에너지 밸리 중심 에너

지산업 육성,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차세대 이차전지 선도도시 조성 등이다.

광주전남 첨단실감 콘텐츠 산업 밸리 조성, 공공기관 연계 기업유치 및 투자 실행 가속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등도 반영했다.

상생 분야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혁신도시 규제 혁파 빛가람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규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연수원 유치, 이전기관 연계형 원도심 마을 특화사업 추진 등이다.

정주 여건 분야에서는 광주 효천역과 나주역을 잇는 광역철도를 놓고 여린이 청소년 테마도서관 건립, 수요자 중심 혁신도시 교육환경개선 등은 정주여건 분야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단독주택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과 빅데이터 서

비스 플랫폼을 갖춘다.

지능형 광역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독거노인 건강관리 및 토탈 케어 서비스, 장애인 최적 안전경로 확보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인재 분야에서는 한전 공과대학 설립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산학협력 맞춤형 인재 육성, 산학연 융합 오픈 캠퍼스 확대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한다.

연구원은 이 같은 혁신도시 시즌2 목표 실현에 필요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체계의 주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특성에 부합하는 정주 여건 시설 개선과제를 우선순위로 발굴하고 여성과 가족의 관점에 기초해 지역사회 현안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아이디어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채만기자

광주시 ‘시정자문회의 2차 총회’ 개최 올해의 음식·송모비 장소 선정 등 논의

광주시는 2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정자문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자문회의 2차 총회를 개최했다.

시민대상 수상자로 구성된 시정자문회의는 광주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상준 의장의 주재로 제5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2019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경과 등을 보고하고 이어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올해의 음식’ 선정, 안중근의사 송모비 건립에 따른 장소 선정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보고안전인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민대상 수상부문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적정 수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올해의 음식’ 선정은 위원들 다수가 광주 정신과 광주 오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광주주먹밥의 상징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광주주먹밥을 ‘올해의 음식’으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안중근 의사 송모비 건립 장소 선정안은 지난 17일 시정자문회의의 환경복지분과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현재 안중근의사 동상이 있는 중외공원에 건립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정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며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광주환경공단·광주도시철도공사 1위

광주환경공단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환경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368개 지방공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75.67점을 받아 전국 5개 환경공단 중 1위로 선정됐다.

공단은 전 부서별로 중·단기 고객만족도 중점개선을 수립, 추진하고 별개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환류하고 있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가 높은 평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강열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

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 행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 결과 전체 평균 87.92 점을 웃도는 89.38 점을 획득, 전국 도시철도 중 가장 큰 고객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CS 역량 향상 및 고객체감형 소통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윤진보 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국내 최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되도록 거듭 노력하고, 세계수업선수권대회 불멸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전남도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본격 지원

중소 기술역량 강화 내달 11-17일 접수

전남도는 20일 “과거 지역경제의 한 축을 그었던 농공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와 대학이 공동으로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농공단지는 총 68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체 산단의 64.8%를 차지해 전국 평균(39.1%)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1천323개 기업을 살펴보면 기술경쟁력이나 사업화 역량이 낮아 매출과 생산성 등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게 됐다.

대학 인력과 기술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공단지 중소기업 9개사에 대비 1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상용화와 응용 기술 개발을 도와 기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고용 확대도 기대된다.

연구개발에만 멈추지 않고 기업과 기술 사업화 전문가 1대1 매칭으로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해 사업화도 지원한다.



장마대비 모래주머니 제작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20일 오전 광주 북구청 건설과 하수팀 관계자들이 망월동 야적장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으로 배부할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다. 모래주머니는 집중호우로 도로 나사가 등의 빗물이 넘칠 것을 대비, 예상지역에 비치한다. /김영근기자

전남도는 연구개발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연구개발 분석으로 2020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지역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6월 11-17일 영암 대불산단에 소재한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www.jeonnam.go.kr)와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송귀 전남도 혁신경제과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농업박물관, 25일 모심기·남도들노래 체험행사

전통 모내기 체험과 남도들노래 시연 행사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전남농업박물관 농업테마공원 벼 한살이 체험장에서 초·중·고교생,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행사는 옛 방식에 따라 만들어 놓은 못자리에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모를 찌내 못줄을 띄워가면서 모를 심는 체험행사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제51호)로 지정된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이영자·박동매 등) 보존회원 30여명을 초청해 참가자들과 함께 ‘모 찌는 소리’와 ‘모심는 소리’ 등을 부르면서 흥을 돋운다.

행사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등록한 후 모내기 체험행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남도들노래 시연을 관람한다. 이어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손으로 직접 찌서 지푸라기를 이용해 ‘모춤’을 만들고 이를 지계에 저 논으로 옮긴 다음 못줄을 띄워가며 모를 심는다.

모내기가 끝난 뒤에는 못밥(설렁탕)과 농주(막걸리) 등 옛 농부들이 협동노동 후 들녘에 응기종기 모여앉아 나눠 먹던 먹을거리 체험도 한다.

초·중·고등학생 및 동반가족 200여명을 오는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개인당 5천원이다. /김재정기자

2019 전국 빛고을 사진대전

[디지털]

Bitgoeul Photo Exhibition 2019

공모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제한없음), 학생부문(중·고 재학생)

접수기한 5월 20일(월) ~ 6월 30일(일) 까지

출 품 료 없음

작품주제 광주시를 대표하는 다섯가지 매력 ‘오매 멋지네’, ‘오매 맛있네’, ‘오매 즐겁네’, ‘오매 편하네’, ‘오매 반갑네’ _ ‘오매광주’를 잘 표현한 작품.

작품규격 FILE(스마트폰,디카) -크기:10MB/개 이하

접수방법 ce21.kr(pc) / m.ce21.kr(모바일) 1인당3점 이내

심사발표 7월 9일(화) 전국빛고을사진대전(ce21.kr)

시상일시 7월중

시상내역

일반공모 대상(1점)100만원, 최우수상(1점)50만원, 우수상(1점)30만원,장려상(10점)100만원.

학생공모 대상(1점)50만원, 최우수상(1점)30만원, 우수상(1점)10만원, 장려상(6점)30만원.

유의사항

- 타 공모전 입 · 수상 작품과 표절이 인정되는 작품은 결격사유.
- 디지털합성 및 수정은 심사에서 제외됨.
- 입선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하여 도서출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 관련한 초상권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져야함.
- 제출한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주최 | C21 (Culture Economy21)

주관 | C21 사진운영위원회

후원 | 광주광역시 | 광주매일신문

문의 | C21 사무국 062.650.2074

CMYK